“이웃과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요”

용호종합사회福, 3월 4일 개관 25주년 기념식 개최

행복 나눔 퍼레이드 통해 소통
노인맞춤형서비스 최우수평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에 총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4일 복지관 내에서 개관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3월 4일 복지관 내에서 개관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 표창 및 유튜브 채널 개설 시청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갔다. 또, 25주년의 ‘25’와 개관일인 3월 4일의 숫자 ‘34’를 활용한 방명록 작성이벤트, 생일이벤트 등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복지관 측은 행복나눔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떡, 풍선 등 선물을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 전달하며 지역민들과 25주년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민들이 있는 곳곳을 방문, 마을 사랑방으로 활동하고 이웃을 위한 소통 기관으로 활약한 옛 추억을 공유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며 복지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관이 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개관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지원 스님과 동성 스님, 이춘성 前 관장 등 내빈이 동참했다. 이들은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복지활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25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유관기관을 비롯한 모든 지역주민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초대 관장이신 혜총 스님을 비롯해 복지관을 거쳐 간 모든 직원들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며 “오늘 25주년을 맞이했지만 100년을 기대하며 더 발전하고 의미있는 복지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25년간 복지관 직원과 주민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은 이용자들의 감동으로 이어져 현재 용호복지관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함께 행복하고 오붓한 복지관을 만들어나가겠다. 이번 행복나눔 퍼레이드를 통해 용호복지관이 지역거점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친밀한 복지관, 행복한 복지관, 활기찬 복지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춘성 문수복지재단 이사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난세’라 칭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우수하게 대처하고 헌신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했다. 용호복지관 직원뿐만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동참과 노고가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25주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수호하는 장승처럼 우리지역의 변함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더불어 실현해 나아가는 평등세상’을 모토로 1996년 개관했다. 2000년 치매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낮 동안 가족처럼 보살피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고, 2003년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2008년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윤리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내외적인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2009년 아동발달상담센터를 확대해 언어, 미술, 심리, 감각통합치료 등 통합적인 치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7년 고객만족도 1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5회 연속 최우수 선정, 장기요양서비스 3회 최우수등급 등에 선정됐다. 2020년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국 최고등급을 받는 등 부산 최고등급의 사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창원 성주사 지역에 자비의쌀 나눔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지역민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성주사(주지 법안)는 3월 5일 창원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주사는 백미 20kg 100포, 총 2000kg를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쌀은 성주사 정초 산림 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 후원했으며, 쌀은 창원시 5개 구청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백승규 시의원, 김이순 신도회장, 황경숙 마야 회장, 이점숙 불모회장이 동참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산림기도를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 보시로 회향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내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려운 시기인데 나눔을 베푼 성주사 스님과 신도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는 3월 5일 창원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어린이법회 지도자 배출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2기 온라인 졸업 개최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은 3월 6일 제22기 대한불교교사대학 온라인 졸업식을 봉행했다.

어린이, 청소년법회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미수)은 3월 6일 제22기 대한불교교사대학 온라인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은 줌(Zoom)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장과 졸업선물, 우수졸업생상 및 상품을 미리 발송해 집에서 동참이 가능했다. 졸업식에서는 제22기 졸업생 23명을 대표해 박윤재 선생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우수 졸업생 시상 및 학장 미수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학장 미수 스님은 “어린이포교는 대작불사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생각을 크게 가져 미래포교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포교를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한 유인순 선생은 “줌과 밴드 등을 통해 앞으로도 포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11주기 추모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3월 9일 맑고향기롭게 서면 사무국에서 법정스님 원적 1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3월 9일 맑고향기롭게 서면 사무국에서 법정스님 원적 1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추모법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법회는 개회와 예불 및 헌화 순으로 이어졌으며 생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영상 시청 및 내빈들의 인사말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자연을 돌아보면 법정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며 “자연과 생명의 지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관 회장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라는 법정 스님의 당부는 지금 현대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며 “오늘 날 우리가 겪을 안타까움을 미리 일러준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법사는 3월 7일 4층 원통보전에서 천수천안 · 준재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마산 정법사, 새 기법으로 불상 조성

3월 7일 천수천안 · 준재보살 관세음보살 점안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천수천안 · 준재보살 점안식을 봉행하고 관음도량으로 새롭게 우뚝 섰다. 정법사(주지 도문)는 3월 7일 4층 원통보전에서 천수천안 · 준재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정법사가 새롭게 조성한 천수천안 관음보살과 준재보살은 형식의 틀을 과감히 깬 작품으로 눈길을 받았다.

점안식에는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정법사 부주지 송정 스님을 비롯해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윤재선 불교조각예술원 대표, 김규리 통영자개 작가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정법사는 관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셨던 관음도량”이라며 “불상의 새로운 양식은 후대 많은 불자들이 지금의 문화를 엿보는 기쁨을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은 “신도님 한분 한분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모여 오늘 이렇게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다”며 “환희롭고 기쁨에 가슴이 벅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법사는 새로운 불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차 불사에서는 수월관음도를 유색옻칠로 조성했고 이번 2차 불사에서는 현대인의 눈에 맞춘 보살상으로 파격을 시도했다. 3차 불사에서는 32응신 관음상, 용왕, 남순동자, 아미타부처님 등이 추가로 제작, 봉안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